

코로나 19 이후 2030년까지 미국을 변화시킬 ICT 기술 분석

“코로나 19사태 이후 미국 사회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전망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Analyzes the Mega Trends ... 2030, May 19, 2021

- 코로나-19사태는 미국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,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GDP는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
- 코로나-19를 극복하고 나면, 미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,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
 -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연령대(2030년 26.6%)로 남은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
 - 기업들이 자동화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, 교육도 고등 교육과 기업 연수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음
 - 새로운 기술, 심화하는 개인화 트렌드, 부트 캠프 등 다양한 형식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
- 향후 10년 동안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메가트렌드는 다음과 같음
 - 사회 관련 트렌드
 - 고령화로 생활 솔루션, 여가 활동 및 의료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것임

- 전체 일하는 여성의 45%를 차지하는 미혼 여성은 자신에게 맞는 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비를 주도할 것임

• 교육 관련 트렌드

- 코로나-19, 학생 절벽, 직업의 자동화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보다 실용적이고 **개인화**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
- 개인화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, 203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률은 11% 증가하고 550,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• 직업 관련 트렌드

- 미국 노동 인구는 2030년까지 1억 7,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 참여율은 64.9%로 소폭 하락이 예상됨
- 코로나-19 이후 **재택근무**를 시작한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여 2030년에는 약 40%의 근로자가 자택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, 재택근무는 업무 행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• 정치 관련 트렌드

- 원격 또는 모바일 투표를 지원하는 기술의 발전은 투표 패턴도 바꿀 수 있음

• 도시화 관련 트렌드

- 미국 교외 지역의 경우,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57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
- 2020년에서 2030년 사이, 교외 지역 인구는 7.9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은 12%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임

• 경제 관련 트렌드

- 최근의 감세와 더불어, CARES 법과 같은 경제 정책은 경기 침체 또는 다른 전염병과 같은 미래 위기가 발생할 경우, 미국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임
- 50개 주 가운데, 캘리포니아, 텍사스, 뉴욕 및 플로리다의 경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, 성장을 이끄는 유타, 노스다코타, 워싱턴 및 네바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
📦 (결론) 코로나-19 이후 10년 동안, 다양한 메가트렌드로 미국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

- 미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,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
- 주요 메가트렌드 : 사회, 교육, 직업, 정치, 경제 및 도시화 트렌드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